

# 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원회, 가칭「미래비전 2050」 인구·교육·노동·복지·기후 분야 과제 논의 착수

-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 분과 회의에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구현을 위한 중장기 미래전략 과제 논의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6.1.15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 【 중장기전략위원회 개요 】

-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舊경제부총리 자문기구로서 2012년부터 운용
- ①혁신성장반 (AI, 바이오, 문화 등 주요산업 및 경제 등), ②미래사회전략반(인구, 교육, 복지,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 ③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 규제개혁, 지역발전 등)으로 구성
- 제7기 위원은 권오현 위원장(前삼성전자 회장)과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

금일 회의는 중장기(중기: 2030년, 장기: 2030년+@)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인구·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방향 및 추진 필요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서는 향후 10~20년간 우리 경제·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과 이에 대응하여 가칭「미래비전 2050」에 어떤 과제를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황준성 위원(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향후에 기술의 빠른 발전, 인구구조 급변, 지역 소멸 등 외에 일부 지역의 군사적 긴장 관계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언급하고, 근본적으로 공생·공영의 가치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인소영 위원(카이스트 지속가능대학원 교수)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적 요인 외에도 국가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NDC 2035 추진 과정에서 산업별·세대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탄소배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하연 위원(나눔비타민 대표)은 AI 대전환이 편리성과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근로의 동기와 사회적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양극화의 심화, 특히 청년층의 사회진입의 지연 또는 이탈을 유발하는 것이 위기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AI 대전환의 장점을 누리면서 동시에 경제·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중산층’ 형성을 위한 정책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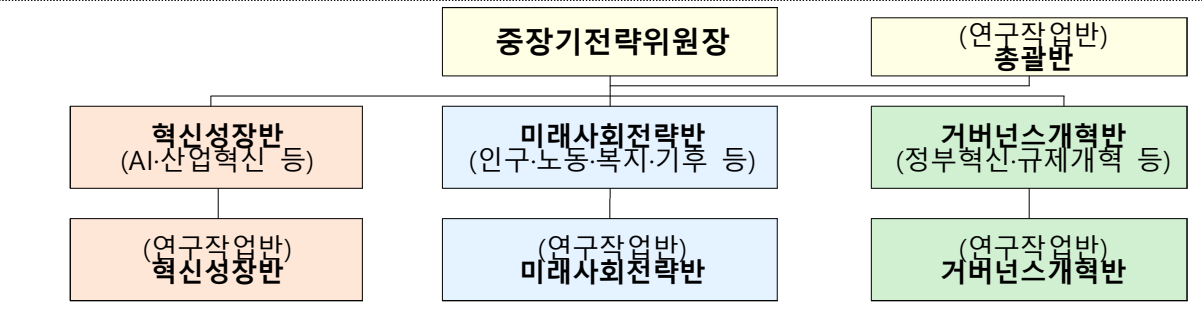
계봉오 분과장(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이고, 이의 중심에는 ‘돌봄위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돌봄 시스템 미흡이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사회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사회복지 체계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미래사회전략반은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곽상현 (044-214-1610)
		담당자	사무관	김효진 (hjkim1104@korea.kr)
		담당자	사무관	어우주 (hidwn@korea.kr)
	미래전략기획실 포용사회전략과	책임자	과 장	이혜림 (044-214-1710)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jihyesim@korea.kr)

# 참 고

##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구성('25.9~'27.9)



분과	사진	이름	현직		사진	이름	현직
위원장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 (간사)
혁신성장반 (8명)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분과장)	미래사회전략반 (6명)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장 부원장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간사)			김기선	충남대 법전원 교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지속가능대학원 교수
		황경민	(주)브이픽스 메디칼 대표	거버넌스개혁반 (5명)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과장)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간사)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			문소영	서울신문 대기자
		장병규	크라프트톤 이사회 의장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분과장)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